

“1만원에 올리는 도심 속 예식” 공공예식장으로 해법 찾는다

전국 최고 수준 결혼비용 부담에 ‘실속형 공공 예식’ 주목
잔디광장·장미공원 개방... 합리적 비용에 특별한 추억까지
5월부터 전남도민 확대... 통합특별시 출범 ‘상생행정’ 실현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전남도민으로 확대한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실속과 의미를 모두 잡으려는 예비부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생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000원) 제공으로 피로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

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 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 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누리집(www.eshar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시청 ‘빛의 정원’은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총 8팀이 100~40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간을 개방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후생관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등에서도 공공예식 자원이 운영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광주는 결혼서비스 비용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상승률도 세 번째를 기록할 만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광주시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는 704

명으로 14.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결혼 관련 비용 상승으로 예비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예식 활성화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길상 총무과장은 “높아지는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에게 ‘빛의 정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결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남구, ‘약 드세요’ AI 돌봄로봇 일상 바꾼다

가족 단절 초기 치매 어르신께 돌봄로봇 제공
100대 보급... 관제센터 연동 응급 대처 기능도

“약 드실 시간입니다.” 광주 남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을 지원한다. 남구는 3일 “고령화 가속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한 가족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의 안정적 돌봄을 위해 AI 돌봄로봇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안심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보급하는 AI 돌봄 로봇은 총 100대이다. 지금 대상은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생활하는 초기 치매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홀로 어르신이다. 남구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추천을 받아 AI 돌봄로봇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대상자 사망 및 시설 입소,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대기자에게 돌봄 로봇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돌봄로봇은 대상자 안부 확인과 말벗 등 대화 기능을 제공하며, 음성 안내를 통해 복약 관리도 지원한다. 또 일상의 일정을 알려주는 알림 도구 증가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한 가족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의 안정적 돌봄을 위해 AI 돌봄로봇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안심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보급하는 AI 돌봄 로봇은 총 100대이다. 지금 대상은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생활하는 초기 치매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홀로 어르신이다. 남구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추천을 받아 AI 돌봄로봇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대상자 사망 및 시설 입소, 타 지역 전출 등의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책을 통해 배우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와 ‘복스타트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는 어린이들이 환경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깨닫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일까지 광주 유일한 랍사르습지인 화암동 평두메습지에서 총 5회 열리며 사전에 모집된 지역

북구, 어린이 맞춤형 생태·독서 프로그램 연다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영유아 복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170여 명이 참여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교육·체험·활동 등 세 과정으로 구성됐다. 습지의 역할과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제공한 뒤 평두메습지에 서식 중인 동·식물 및 곤충을 직접 관찰한다. 관찰 활동 이후에는 나만의 습지 만들기 체험과 습지 사랑을 위한 약속을 공유

한다. 북구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는 영유아의 생애 첫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영유아 복스타트 사업’이 추진된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연령별 세 단계로 나눠 양육자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놀이 프로그램은 책과

관련된 그리기·만들기·신체활동 등 부모와 아동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됐다. 복스타트 참여 신청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기타 문의는 각 도서관에 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유아기 다양한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서구, 발달 장애인 태권교실 본격 운영

태권도·전신운동 중심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발달 장애인의 기초 체력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일상 속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주 2회 지역 태권도장과 연계한 ‘태권교실’을 진행한다. 태권도 전문강사

가 참여해 태권도, 협응운동, 과제해결운동, 인지훈련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지도한다. 또한 참여자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낙상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해 신체 조절능력과 협응능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 향상은 물론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주 1회 소도구와 매트를 활용한 전신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력과 유연성 강화 중심의 운동으로 기초 건강체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중기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구축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

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표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다른 개헌 정쟁과 달리 5·18 헌법 수록만큼은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에 대해 역설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5·18 당시 재야 인사들이 수습대책위를 꾸려 활동했던 또다른 항쟁 구심점 광주 동구 남동성당(5·18 사적지 25호)을 찾아 미사에 참여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5·18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로 향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은 역사가 아니라 헌법에 담겨야 할 가치다.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리는 뜻이 아직도 헌법에 담

기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이를 받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다. 아들들을 먼저 보낸 오월 어머니들도 헌법전문 수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제2, 제3의 반헌법적인 12·3 계엄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대적인 과제를 지키는 숭고한 뜻에는 모두 동참해주시라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남편과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그간 미흡했던 5·18 진상규명에 애끓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어머니들에게 있어 묵은 앙금을 조금이나마 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가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동취재부

2026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